막강 화력을 과시하는 북일고와 탄탄한 조직력으로 무장한 충암고가 21일 오후 1시 무등경기장야구장에서 무등기의 대미를 장식하는 최후의 대결을 벌인다.

'막강 화력' 북일고냐 '조직력' 충암고냐

각각 휘문·경북 꺾고 결승 격돌

북일, 3경기서 26점 맹타

충암, 끈질긴 뒷심·팀워크 탄탄

제17회 무등기 고교야구

천안 북일고와 서울 충암고가 무등기 우승컵을 놓고 최후의 대결을 벌인다.

제 17회 무등기전국고교야구대회가 21일 오후 1시 천안 북일고와 서울 충암고의 결승전을 끝으로 8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한다.

막강 화력을 앞세운 북일고와 탄탄한 조직력으로 무장한 충암고는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무등기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이정훈 감독이 지휘하는 북일고는 19일 열린 준결승전에서 대통령배 우승팀 휘문고를 9-3으로 제압하고 결승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앞선 두 경기에서 17점을 뽑아냈던 북일고는 준결승에서도 11개의 안타를 몰아치며 휘문고 마운드를 공략했다.

3회초 1사 1·2루에서 신준섭의 적시타로 선취점을 올린 북일고는 폭투로 두 번째 점수를 기록한 뒤 홍성갑의 2타점 2루타를 더해 4점을 뽑아냈다.

7회 2사 2·3구에서 투수 박성민의 폭투로 2점을 달아난 북일고는 9회말 한덕교·신준섭·최형종의 연속안타를 앞세워 마지막 공세를 벌였다. 상대 실책과 희생플라이를 더해 3점을 추가한 북일고는 9-3 대승을 거뒀다.

이영복 감독이 이끄는 충암고는 준결승에서 경북고 타선을 봉쇄하며 7-1로 결승 진출을 확정지었다.

1-1로 맞선 5회말 충암고가 1사 1루에서 터진 서문환의 2루타에 힘입어 2-1 역전을 이뤘다. 6회에는 상대 마운드 난조를 틈 타 대량 득점에 성공했다.

6회말 1사에서 유원선이 몸에 맞는 볼로 출루한 뒤 류지혁의 내야안타가 이어졌다. 투수가 임기영으로 교체됐지만 3개의 사사구가 연달아 나오면서 충암고가 손쉽게 3점을 뽑아냈다. 테이블 세터 강병의·조영재의 연속안타가 나오면서 경기는 7-1 충암고의 완승으로 끝났다.

북일고와 충암고는 시즌 첫 대회인 황금사자기에서 16강에 진출 한 뒤 대통령배에서는 각각 8강과 4강에 오르는 저력을 보여줬다.

북일고는 이번 대회 8강 경기에서 진흥고를 9-2, 콜드게임승으로 누르는 세 경기에서 26점을 뽑아내며 막강 화력을 과시했다.

짜임새 있는 마운드도 장점이다. 대회 2경기에서 13이닝동안 2.08의 방어율을 기록하며 2승을 거둔 송윤준과 8강전 승리투수 이영재 두 좌완과 에이스 임규빈이 북일고 마운드를 지키고 있다.

충암고도 이번 대회 3경기에서 26개의 안타를 뽑아내며 활발한 타격을 선보였다.

탄탄한 팀워크도 돋보인다. 충암고는 세광고와의 16강전과 경북고와의 준결승에서 선취점을 지키지 못해 동점을 허용하고도 뒷심있는 플레이로 승부를 뒤집고 결승에 올랐다.

이번 대회에서 나란히 1승씩을 수확한 청소년 대표 최현진과 완봉승의 주인공 권태연 그리고 2학년 사이드암 변진수는 북일고 마운드와의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23일 넥센전

'타이걸스 데이' 행사

KIA타이거즈가 여성팬들을 위한 '타이걸스(Ti-Girls) 데이'를 개최한다.

KIA는 23일 안방에서 열리는 넥센전을 '타이걸스 데이'로 정하고 입장권 할인 혜택과 경품 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날 야구장에서 티켓을 구매하는 여성관객들은 일반석 및 지정석 2천원 할인을 받게 되며, 여성팬들을 위한 전용 입장매표소 및 게이트가 설치된다. 여성관객 중 선착순으로 입장하는 500명에게는 빕스 샐러드바 무료 시식권(1매 3인 사용가능)이 증정되며 여성 관객을 대상으로 한 추첨을 통해 동양매직에서 제공하는 스팀 오븐기 1대가 제공된다.

타이거즈 샵에서는 핑크 유니폼과 모자, 액세서리 등 여성용 상품이 20% 할인 판매된다. 장외에서는 메이크업 및 네일아트, 페이스 페인팅 행사가 펼쳐진다.

여성 관락갬 시구자도 모집한다. 시구자는 e메일(tigerpower@kiatigers.co.kr)을 통해 시구 사연을 접수받아 선정한다.

오후 5시 40분부터는 선수단 사인회도 개최된다.

KIA는 앞으로 매달 '타이걸스 데이'를 실시해 여성 관람객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할 계획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010 남아공 월드컵

北, 44년전 역전패 수모 갚는다

오늘밤 포르투갈과 2차전…정대세-호날두 맞대결 주목

'천리마 군단' 북한 축구 대표팀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포르투갈을 상대로 44년 만에 설욕전에 나선다.

북한은 21일(이하 한국시각) 오후 8시30분 남아공 케이프타운에 있는 그린포인트 스타디움에서 포르투갈과 본선 G조 2차전을 치른다.

세계 축구팬들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북한이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에서 포르투갈에 당한 뼈아픈 역전패를 설욕할 수 있을지다.

북한은 당시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3차전에서 이탈리아를 꺾고 8강에 오르면서 세계 축구사에 가장 큰 충격을 안긴 팀이었다.

북한은 그 해 7월 23일 영국 리버풀스타디움에서 벌어진 포르투갈과 준준결승전에서 3골을 미리 뽑아 4강을 눈앞에 뒀으나 거짓말처럼 내리 5골을 내주면서 역전패했다. 경

기 시작 53초 만에 박승진이 선제골을 터뜨렸고 전반 21분과 22분 이동운과 양성국이 추가골을 뽑았지만 모잠비크 태생의 '흑표범' 에우제비우에게 내리 4골을 헌납하면서 분루를 삼켰다.

북한의 이번 대회 좌우명은 '1966년처럼 조선아 이겨라'다. 그만큼 선수들에게는 포르투갈에 진 빚을 반드시 갚고 16강에 진출하겠다는 투지가 뜨겁다.

공격의 선봉에는 정대세(26·가와사키 프론탈레)가 나선다. 정대세는 지난 16일 브라질과 조별리그 1차전에서와 마찬가지로 수비진에서 한 번에 날아오는 패스를 받아 득점을 노리는 방식으로 뛸 것으로 예상된다.

홍영조와 문인국·안영학 등이 정대세의 뒤를 받쳐 공수를 오가고 수비진에는 지윤남·리광천·남성철·박철진·리준일 등이 벌떼수비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브라질과 조별리그 1차전처럼 공격수 1명만 빼고 자기진영에 9명이 포진해 수비에 집중하다가 빠른 역습을 펼칠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하지만 1패를 안은 북한으로서는 2차전에서 승점을 쌓지 못하면 16강 진출이 사실상 좌절되기 때문에 수비 편중을 줄이는 깜짝 전략을 들고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연합뉴스

실력도 악행도 '스타급' 선수들

아넬카, 감독에 욕설…월드컵 대표팀에서 퇴출

루니, 팬들에 독설 후 "죄송합니다" 공식 사과

전 세계 축구계의 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월드컵 축구대회에는 뛰어난 실력에 돌출 언행까지 갖춘 문제아도 적지 않다.

이번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도 문제성 행동으로 유명한 악동들이 참가해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폭언과 폭행·음주·여성편력 등 전공(?)도 다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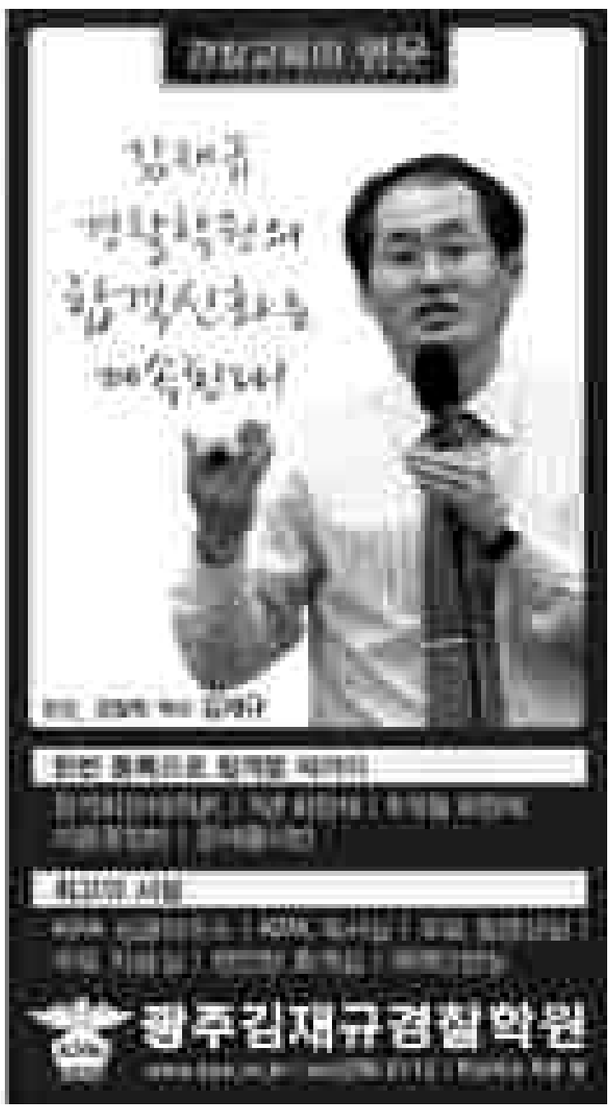
지난 18일 레몽 도메네크 감독에 대들었다가 대표팀에서 쫓겨난 프랑스팀 스트라이커 니콜라 아넬카(첼시)는 거친 언행으로는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악명이 높다. 2008~2009 시즌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인 아넬카는 물오른 득점력으로 노쇠한 레블뢰 군단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18일 멕시코와 경기 도중 도메네크 감독을 모욕하는 언사로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이번 월드컵에서 퇴출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아넬카가 월드컵 도중하차라는 업적(?)을 쌓기는 했지만 '폭언' 분야의 현역 최고봉은 역시 잉글랜드의 웨인 루니(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할 수 있다.

루니는 다혈질에 승부욕 강한 성격 때문에 경기중 심판이나 상대팀 선수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기로 유명하다. 남아공 월드컵 직전 평가전에서도 심판에게 욕설을 퍼부었다가 경고를 받아 온 잉글랜드를 긴장시켰고 19일 알제리와의 조별리그 2차전 직후에는 '야유해줘서 고맙다'고 팬들에게 비아냥댔다가 하루 뒤 공식 사과를 했다.

〈루니〉

〈아넬카〉

세계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포르투갈의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는 그라운드 위에서보다는 '장외'에서 악명을 떨치는 경우다.

/연합뉴스